

투데이

F1 개최권료 낮추기 '빨간불'

F1매니지먼트 회장 "재협상은 없다" 강경

최악의 경우 'F1 캘린더' 한국 빠질 가능성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권료 재협상이 압초에 부딪혔다.

전남도와 F1대회조직위원회가 매년 10%씩 상승하는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니 에클레스턴 F1 매니지먼트(FOM·Formula One Management)회장이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미국 뉴욕을 비롯, F1 대회를 개최기로 한 나라가 많아지면서 최악의 경우

내년 F1 대회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ESPN 등 외신은 최근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이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F1 대회 주최 측에 경고(sends warning)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버니 회장은 최근 인도 그랑프리에 참석했다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들어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 그런 일들을 굳이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개최권료를 내지 못하겠다면 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으로, 재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F1 대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미국 뉴저지가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한 스트리트 서킷을 구성해 F1 대회를 개최기로 확정하는 등 대회 개최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버니 회장의 발언이어서 최악의 경우 'F1 캘린더'에서 한국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F1조직위원회는 매년 10%씩 상승하면서 내년도에만 각각 480억원과 154억원에 이르는 개최권료와 중계권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 중이며 조만간 박준영 전남지사가 직접 버니 회장을 만나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장 많은 개최권료를 내는 한국을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1 대회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FOM도 국제 자동차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개최권료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 두륜산에도 주상절리 비경있다



해남 두륜산 도솔재 주변에 높이 20m, 너비 80m가량의 육각형 모양으로 펼쳐진 '주상절리'가 비경을 연출하고 있다.

도솔재 주변 높이 20m·너비 80m 돌기둥 육각형 모양으로 펼쳐져

신공귀장(神工鬼匠)이 조화를 부려 생겨났다는 '주상절리대'가 전남 해남 두륜산에서 확인돼 화제다.

해발 600m의 두륜산 도솔재 주변에 높이 20m, 너비 80m가량의 돌기둥이 육각형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 주상절리대는 광주 무등산 서석대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엄청난 깊이로 흐른 용암이 갑자기 식어 나타난 주상절리는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에

의해 돌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너털이 발견되는데, 두륜산 주상절리대 주변에도 너털지대가 발견되고 있다.

이 주상절리는 지명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해남 산악인 천기철(52)씨가 최근 발견했다. 천씨는 30일 "예부터 도솔재 주변이 내원산 서석대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엄청난 깊이로 흐른 용암이 갑자기 식어 나타난 주상절리는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에

과) 교수는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장 사진을 통해 볼 때 주상절리가 맞다"면서 "해남군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절리대가 발견된 도솔재 주변에는 대흥사 관할 내원사라는 암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부처상을 보았다는 이들도 있어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국립전파연구원 건축허가 나주 혁신도시에 12월 착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전남도는 국가 정보통신 표준화와 기술기준 연구,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품질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부지 면적 3만 4402㎡, 연면적 1만469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2월 착공

예정이며 임직원은 142명이다.

이로써 공동혁신도시에는 지난 4월 착공한 우정사업정보센터를 비롯해 이전 예정기관 15곳 가운데 10곳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일 오후 2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나주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전신사옥은 지상 31층·지하 2층(연면적 9만3221㎡) 규모로 지어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하철 승객 크게 늘었다

기름값 고공행진 여파 하루 평균 4만 8337명

유류 값이 오르면서 최근 광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는 최근의 승객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10월 하루평균 4만8337명의 시민이 탑승, 지난해 같은 달 평균 4만7411명보다 1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처럼 지하철 승객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유류 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거 지하철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웰빙 추세가 확산되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늘어난 것도 주 이유로 분석됐다.

이호준 사장은 "지하철 이용은 사회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에도 매우 효과가 좋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뉴스 브리핑

박보영·김용덕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능력과 법률이론,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초 실시될 예정이다.

4기 '광주 맛집' 1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제4기 '광주 맛집' 신청 접수를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광주시 또는 자치구 관공부서, 음식점중앙회광주

시지회에서 받으며, 광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교부받은 소로 1년 이상 계속해 운영 중인 음식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해야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30일 공공비축미 매입시 지급하는 우선지급금(1등급 기준 4만7000원)을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반영해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산지에서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 출하를 미루면서 매입 실적이 예초 계획량보다 저조한 만큼 1등급 기준 5만1000~5만3000원으로 인상해야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 출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비 수확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4만7000원인데 반해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자체 매입가격은 5만1000~5만3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의 경우 쌀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공비축미 출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우선 지급금을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가 매입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려 농가들의 공공비축미 출하를 도와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울고법원장 김진권·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고위법관 7명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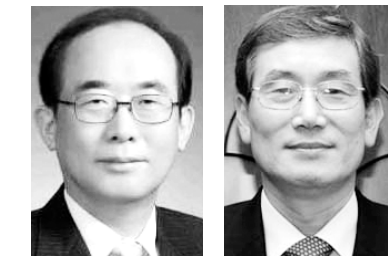
대법원은 지난 28일 서울고법원장에 남원 출신인 김진권(61·사법연수원 9기) 대전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광주 출신인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7명에 대한 전보·검인사를 내달 2일자로 단행했다.

대전고법원장은 최은수(57·9기) 특허법원장이 겸임하고 김병은(54·12기) 서울고법 수석부판관사가 전주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은 김용덕(54·12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지난 8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구옥서(56·8기) 서울고법원장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성호(54·12기) 서울고법 부판관사가 수석부판관사직을 맡고, 김상준(50·15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는 서울고법 부판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를 나온 김진권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



김진권 고법원장 고영한 차장

동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역임했다. 또,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 서울대를 나온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판관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판관사, 전주지법원장을 거쳤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분 (병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장애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범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평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치료

대한 한의학회 의료광고심의규 제110725-중-9092호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전남 · 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 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의 파티외식산업

문의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KBS세 -80%+0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 -80% (6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리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한민국도 실거래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평균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